



날짜	2023년 7월 3일 (월)	담당자	정준모 조직국장 010-3071-2012
전화	02-831-1206	팩스	02-834-1084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2층	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코스트코, 31세 건강한 노동자 쓰러져 사망 노동부는 중대재해 철저히 조사하고 보호조치 강구하라 코스트코는 즉시 인력을 충원하라! 마트노조 기자회견			

[기자회견]

코스트코, 31세 건강한 노동자 쓰러져 사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철저히 조사하고 보호조치 강구하라.** **코스트코는 즉시 인력을 충원하라!**

- 일시 : 2023년 7월3일(월) 오전10시 / - 장소 : 서울 노동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마트노조 조직국장 정준모

발언1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발언2 :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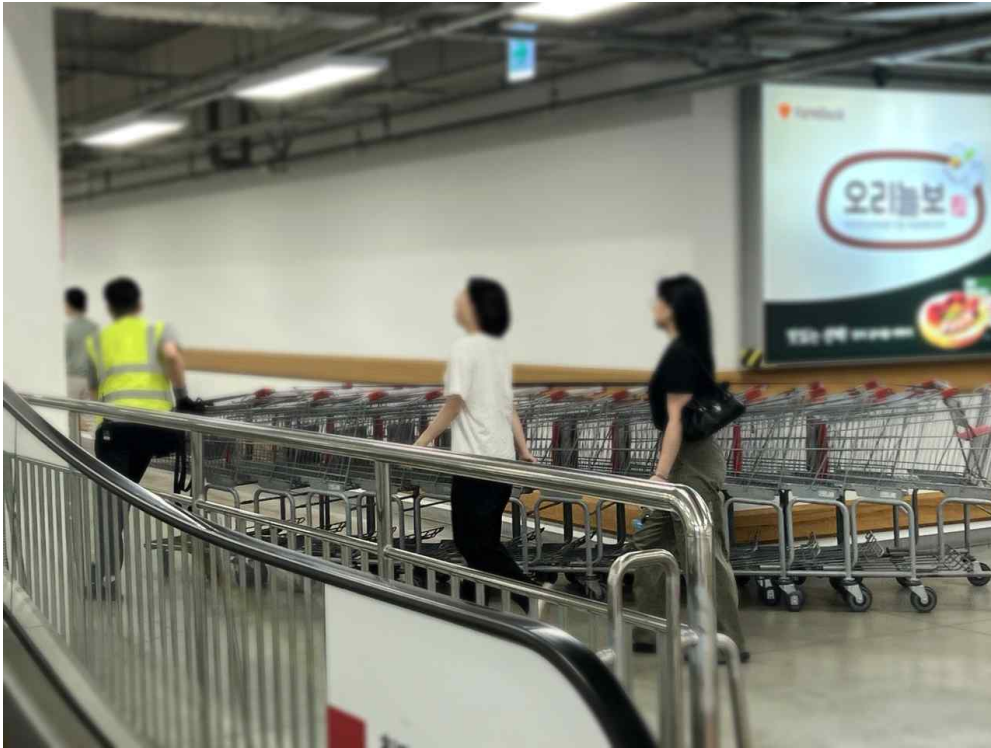
발언3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발언4 : 코스트코지회 박건희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1.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노동자(30대, 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코스트코 사측은 장례이후 유족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유족측의 요구인 CCTV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유족측 요청인 CCTV 제공하고, 산업재해 신청시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합니다.
3. 언론보도 이후 코스트코 하남점은 카트 사무실에 의자 몇 개를 추가하고, 얼음팩이 들어가는 조끼를 사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근본적인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맘 편히 설 수 없습니다. 인근 점포에서 콤보로 인력을 차출하여 윗돌빼서 아래돌 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스트코에는 안전수칙을 어기고 쇼핑카트를 10대~15대 이상을 끌고 다닙니다.
4. 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폭염시 휴게시간 부여 등 관련조치는 노동부의 권고안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부는 쓰러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처벌조항 신설강화 등 실효성있는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5. 코스트코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근본적인 인력충원으로 사원들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휴게실과 휴게시간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전체 사원들에게 이번사고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코스트코의 근본적 개선조치가 있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7월1일 하남점 카트 작업 모습



▲ 잠시라도 앉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의자도 없음

부서별 작업 환경 개선방안

부서	문제점 (유해요인의 원인)	개선방안
카운터	•장시간 서있는 자세 •동일한 작업 반복 수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영수증 절취, 계산, 제품 취급)	•입좌식 의자, 피로예방매트 제공  •보호대 지급 (손목, 허리) •컨베이어벨트 사용으로 팔뻗음 자세 방지 (제품 이동시)
카트	•카트 이동 작업 •동일한 작업 반복 수행	•올바른 작업 매뉴얼 작성 -20개이상 카트 적재 금지 -2인 이상 배치 •손목보호대 지급 
Center Food Hard Major Night 냉냉 농산	•상품진열 작업 반복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목과 허리 굽힘 자세 발생,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세 등) •중량물 취급(5~20Kg)	•보호대 지급(손목, 허리) •올바른 작업 매뉴얼 작성 -20Kg이상 2인 1조 작업 수행 -일정 높이 이상 작업 발판 사용 지도  •수시스트레칭 실시 지도
MKT	•장시간 서있는 자세 •제품교환, 환불 시 제품취급(중량물) •컴퓨터 작업(키보드,마우스)	•입좌식의자, 피로예방매트 제공 •인체공학 마우스 제공 •손목받침대 제공(컴퓨터작업) 
RCV	•중량물 취급 - 상품 검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목 비틀림)	•올바른 작업 매뉴얼 작성 -20Kg이상 2인 1조 작업 수행 -일정 높이 이상 중량물 적재 금지 •어깨/목 스트레칭 집중 실시 지도

▲코스트코 한 점포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표. 개선방안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음.

문서번호 : 제 23-0627-04

시행일자 : 2023-06-27

수 신 : (주) 코스트코 코리아

제 목 : 사망사건 관련, 사원 보호대책마련 및 근무환경개선 요청의 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월19일 하남점 사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일터 내 어떤 형태의 재해도 일하는 환경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물론, 귀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 환경을 돌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특히, 하남점은 무리한 인력 운용으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점 점장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마련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귀사에서 직접 하남점의 근무 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하시어, 하남점을 비롯해 코스트코 내 전반적인 노동 안전,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반적 지침 하달에 그치지 않고, 안전 보건관리 인력을 확대 하여 업무 및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4. 우리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예방 및 개선 조치로서 요구합니다. 끝.

- 아 래 -

- 즉시 정규인력 충원, 인력 충원을 어렵게 하는 콤보 폐지!
-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40분 작업 20분 휴식 보장! 14시~17시 실외, 옥외작업 최소화!
노동자의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 보장! 주차장 공기순환장치 개선.
- 보냉장구, 시원한 생수, 이온 음료 지급
- 전반적 휴게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유급 휴식 시간 40분 확대!
- 계산대 1회 투입시간 2시간 이상 금지! 서서 일하는 모든 곳에 적절한 의자 지급
- 전 직원 사례교육 및 안전 보건관리 인력 증원 및 점검시스템 구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노동조합 공문

[발언문 1]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마트노조 위원장 정민정입니다.

우선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초반의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그 노동자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출근 준비를 하였고, 출근하여 동료들과 대화도 나누었을겁니다. 하지만 오전 11시부터 내내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 켠에서 잠시 쉬던 중 쓰러져 운명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황망한 죽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도대체 코스트코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니 어떤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이제 30대 초반인 청년의 꿈꿨던 미래를 누가 보상할수 있습니까? 유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수 있겠습니까?

연이은 폭염에 달궈진 시멘트로 만들어진 주차장의 열기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에어컨 바람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문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만 3천 보를 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크고 무거운 철제 카트를 십수대에서 이십대씩 한 묶음으로 밀고 다니며 근무 시간 내내 26km를 움직였던 겁니다.

매출 5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에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목숨을 잃을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루에 4만보 이상을 걸으면 철제카트를 옮기고 있을거라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국이라, 여기서는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21년 미국 코스트코 시급은 2만원이 넘었습니다. 미국 평균 시급보다 2배 많이 주는 것뿐만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만 이러는 겁니까? 폭염의 노동자에게 냉방장치하나 제대로 가동해 주지 않고, 휴게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도 인원을 충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니 코스트코가 한국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코스트코는 여전히 폭염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위 시작입니다. 이러다가 코스트코에서 언제 또 노동자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대책수립은 코스트코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년동안 해태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여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시키고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코스트코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가장 강력한 처벌을 코스트코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수 있습니다.

마트노조는 코스트코 노동자들과 함께 죽지않기 위한 투쟁, 한국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발언문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 노동자가 주체가 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조건희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한다고 설명하고 있 더군요. 노동자 건강의 유지를 넘은 향상이라는,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이 문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일하게 되면 아프거나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자본과 정부의 행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매해 2,000여 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은 이윤과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기본적인 노동자 안전보건조치를 뒷전으로 미뤄온 행위의 결과기도 합니다.

- 역대급 폭염이라고 합니다. 매년 역대급 폭염입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폭염과 폭한. 장마 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사망한 노동자 역시,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날씨에서 에어컨 등 냉방 시설도 없는 주차장에서 카트를 끌며 일해야 했다는 상황이 노동조합의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물, 그늘, 휴식을 원칙으로 한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찾아보았습니다. 기본수칙이라는 것은, 기업은 최소 이것은 제공하고 그 이상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시

원한 물 제공. 휴게실은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휴식공간에서 휴식하고, 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폭염 등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노동강도 완화와 적절한 휴식이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현되었다면, 이번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현장 고발에서 드러났듯, 부족한 인원 속 카트가 시시각각 쌓이는 상황 속 노동자는, 수십 개의 카트를 끌어야 했습니다. 강한 노동강도와 부족한 휴식 시간과 더불어, 욕실 의자 정도만 비치된, 5층이라는 너무나 먼 거리의 휴게공간 역시 노동자가 원할 때 혹은 긴급할 때 이용하기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폭염 관련 대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수칙을 사업주와 정부에게 요구하고 관철한 주체는 단결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정부의 탄압을 받는 건설노동조합은 폭염 노동실태 점검 및 문제제기를 통해 제대로 실 권리를 관철해왔습니다. 동탄 물류센터에서만 3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는 쿠팡의 경우도, 노동조합과 공동위는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문제를 드러내고 싸워왔습니다.

-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코스트코의 경우도,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0년 8월 설립과 함께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POS 연속근무시간 1회 2시간 제한, 옥외작업 시 건강 보호, 의자비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산재가 왜 기업살인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 또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통제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며, 이 권리의 발현에, 사업주와 정부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 탄압하지 말고, 적극 조장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코스트코가 마지막 일터가 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이것으로 폭염이나 폭한, 강한 노동강도로 인해 노동자를 사망으로 내모는 마지막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폭염 시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인력을 충원하며 휴게공간과 시간을 확대/의무화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적,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코스트코 사망사건 중대재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코스트코에서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극한의 인력 쥐어짜기로 사람을 갈아넣는 코스트코에서 예견된 인재다.
법에 정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과태료로 때우는 회사가 코스트코다.

코스트코에서는 잇 선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다.
계산대 1회 3시간 이상 투입, 폭염시 추가 휴게시간 부여 모두 점장의 재량과 의지에 달려있다. 코스트코는 이번 사망사건이 어떻게든 중대재해로 번지지 않게하려 전전긍긍하며 입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폭염에도 4만3천보를 걸으며 일해야 하는 코스트코, 돈 아낀다고 냉방시설 가동 중단하는 코스트코, 유족들의 CCTV 요청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코스트코
이 상황에도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버티려는 코스트코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초동대처, 산재은폐 가능성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단순 권고가 아닌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보호조치를 위해 법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코스트코 미국본사는 배당과 로열티 수취를 위한 자회사를 따로 두면서 최근 5년 동안에만 7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코스트코 코리아로부터 가져갔다. 코스트코는 매출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하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말로는 사원존중 법률준수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어떤 입장도, 개선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국내기업보다 못한 대응을 하는 곳이 바로 외국자본 코스트코의 실체다. 사람이 먼저다! 매출에 눈 먼 코스트코는 각성하고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조사에 따른 결과 및 대책마련과 코스트코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3. 7. 3.
마트산업노동조합